

지역전략산업 융합 ‘광주형 AI 반도체’ 개발한다

시, 시스템반도체 개발기업 유치
실리콘밸리 출신...핵심기술 연구
지역인재 육성·일자리 창출 기대
“AI 반도체 클러스터 확산 지원”

광주시가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에임퓨처를 유치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융합한 ‘광주형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나선다.

팹리스(Fabless)란 Fabrication과 less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반도체를 직접 제조(fabrication)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 기업을 말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공지능망 처리에 효율적인 신경망 처리장치(NPU) 개발 기업인 ㈜에임퓨처와 223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팹리스 기업 유치는 지난 9월 지역 최초로 팹리스 기업 ㈜에이직랜드를 유치해 이어 두 번째이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김창수 ㈜에임퓨처 대표이사,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5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원장,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본부부장, 원광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장, 양봉수 한국광기술원 경영지원본부장, 안재숙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에임퓨처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LG전자 마주연구소에서 AI 핵심기술을 연구하던 소속 연구원들이 지난 2020년 설립한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이다.

AI 처리에 특화된 시스템 반도체인 신경망 처리장치(NPU)를 개발, 이를 기반으로 단말형 인공지능(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시스템 분야에서 AI 지식재산권(IP), 인공지능 반도체칩, 인공지능 알고리즘·소프트웨어 등 인공지능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행정적 지원과 지·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업 지원에 나서고, ㈜에임퓨처는 ‘광주형 AI반도체’ 기술 개발과 반도체 설계분야 지역인

재 육성·채용,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기존 유치기업은 광주형 AI반도체 공동 기술개발과 솔루션 제공에 협력하며, 관계기관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광주형 AI반도체의 실증 지원에 나선다. 또 지역 수요기업은 광주형 AI반도체 고도화 및 클러스터 확산에 협력키로 했다.

㈜에임퓨처와 기존 유치기업인 ㈜에이직랜드·㈜인비즈·㈜티맥스인공지능개발센터·㈜프리세는 함께 지역전략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광주형 AI반도체’인 단말형 인공지능(온디바이스 AI) 반도체칩과 솔루션을 개발한다.

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광주테크노파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한국광기술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본부·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 지역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 연계 광주형 AI반도체의 실현가능성을 검증(PoC)할 예정이다.

여기에 폐쇄회로태블리전(CCTV) 행동인식 인공지능 솔루션 보유기업인 ㈜세이프모션, 인공지능 기반 메디컬·헬스케어 제품 개발기업인 ㈜알파노스, 전자차

화재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용화한 기업인 엔에이치네트웍스㈜, 실감형인터랙션 기술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시스템 구축기업인 ㈜위치스, 폐쇄회로태블리전(CCTV) 영상분석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 개발기업인 ㈜이노탑, 비접촉 동물개체 생체정보 분석 기술 개발기업인 인트플로우㈜, 수소연료전지 고장예지 시스템 제공기업인 ㈜호그린에어 등 지역 수요기업의 제품에 광주형 AI반도체 칩을 적용, 제품화 및 확산까지 하는 형태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광주형 AI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역전략산업과 융합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대한민국의 AI 산업은 광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가AI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가 갖춰진 덕분에 수많은 기업이 광주를 찾고 있다”며 “광주형 AI반도체칩을 설계 개발하는 첫 단계부터 검증하고 제품화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선순환체계가 갖춰진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더욱 의미가 크다. 기업·기관의 역할을 결집해 반드시 AI반도체 클러스터 모델을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경총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중장년층 재취업 등 지원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운영 중인 중장년 내일센터(이하 중장년센터)가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7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중장년센터는 북구와 광산구에 소재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중장년 전담 창구를 마련해 지역 중장년의 재취업 뿐만 아니라 제2의 인생준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최근 진행한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은 광산공유센터 2층 강의실에서 ㈜해양에너지 퇴직예정자 19명이 참여했으며, 100세 시대를 대비한 일 중심의 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생애 6대 영역(일, 재정, 가족, 대인관계, 건강, 여가)에 대한 진단과 결과 나누기, 삶의 강점 영역 만들기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직업생활 등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중장년에게 꼭 필요한 △현명한 자산관리 △재취업을 위한 경력설계 △창업 컨설팅 △건강, 여가활동 방법 등을 교육했다.

특히 이날 강연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 소개와 함께 예비 창업자를 위한 상권정보 등을 제공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재중 중장년센터장은 “100세 시대에 60세에 은퇴한다면 남은 40년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장년센터의 생애설계와 재취·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사 임직원의 인생 2막을 설계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퇴직예정자 대상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는 광주경총 중장년센터(062-609-8964)로 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중기 기술·융합 성과 공유...‘중소기업 융합대전’ 성료

중소기업의 다양한 기술·융합 성과를 공유하는 광주행사가 막을 내렸다.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는 ‘2024 중소기업 융합대전’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폐막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성과와 제품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는 26일까지 펼쳐진다.

‘융합과 혁신으로, 중소기업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일반·특별전시관 등 239개의 전시 부스가 설치돼 중소기업의 성과와 다양한 특허 기술을 선보였다.

또 광주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자리박람회,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수출상담회가 진행됐다.

광주홍보관에는 창업기업 실증제품 6개, 기술혁신인증 제품 15개 등 광주 곳곳

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증 제품이 전시됐다.

폐막식에서는 중소기업융합대전 차기 개최지인 대전으로 회기가 이양됐다.

박소영 기자

제 1143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10	16	17	27	36
6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25억4565만원	
2등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185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47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롯데칠성음료, 지속가능성 확보로 미래 경쟁력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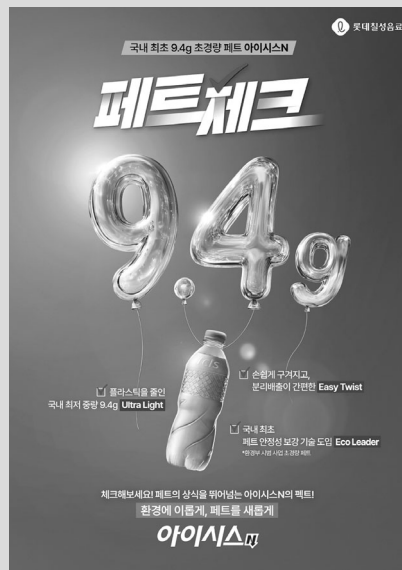
국내 첫 질소 충전 기술 적용
초경량 페트병 ‘아이스스’ 출시
무라벨로 플라스틱 182톤 절감

국내 대표 음료·주류 기업인 롯데칠성음료가 글로벌 환경 이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자 ESG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7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이달 국내 최초로 질소 충전 기술을 적용한 생수 ‘초경량 아이스스’를 선보이며 11.6g이었던 500mL 페트병 중량을 9.4g으로 18.9% 경량화 했다. 1997년 아이스스 출시 당시 용기 무게인 22g과 비교하면 약 57% 낮아졌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초경량 패키지 도입으로 연간 127톤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2020년 1월 국내 생수 브랜드 최초로 페트병 몸체의 라벨을 없앤 제품 ‘아이스스8.0 ECO’를 선보였다. 무라벨 제품 확대의 노력에 따른 2023년 플라스틱 사용 절감량은 182톤에 달했다. 이는 유라벨 생수 500mL 페트병 라벨의 무게가 0.37g인 점을 고려하면 제품 약 5억개 분량의 라벨을 감축한 것이다.

무라벨 제품은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에게 생수 구매의 주요 기준으로 떠올라 전체 생수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대세 제품으로 자리잡았고 탄산 및 커피 제품군을 포함한 무라벨 제품의 비중은 30%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후 2021년 6월 업계 최초로 플



라스틱 부산물을 활용한 rPET(RecyclePET:재생패트)의 기술 및 품질 검증을 시행했다.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만드는 ‘보물 투 보물’의 실현을 위해 ‘아이스스 8.0 ECO 1.5 L’ 제품에 재생 원료 10%를 넣어 생산하

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2023년 ESG 경영 성과를 담은 ‘2023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경영 실천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다.

2030년까지 석유에서 추출된 원료로 만들어진 신재 플라스틱 사용량을 2023년 대비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플라스틱 용기 경량화’와 ‘재생원료 사용 확대’라는 두 가지 추진 전략을 내세웠다. 플라스틱 용기 경량화는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플라스틱 무게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페트병 뚜껑 높이를 낮추는 등 최적화 된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다. 또 재생원료 비중을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하기 위해 아이스스 ECO 외부 포장에 적용된 재생원료 20%를 섞은 PE(Poly Ethylene) 필름을 2030년까지 전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나다운 기자**



환경에 이롭게
페트를 새롭게
아이스스

롯데칠성음료